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수준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Fathers' Playfulness and Play Participation Level on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여윤재¹ 황혜신²

Yoon Jae Yeo¹ Hae Shin Hwang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thers' playfulness on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playfulness and his child'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9 children and their fathers. The children were aged between four and five years old attending nine preschool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Results: First, fun-loving fath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operation and sociability of their children. Second, fun-loving fath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hird, fa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enjoying silliness and their children's sociability. Fourth, fa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eing fun-loving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ddress the need for a high level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key words playfulness, play participation level, social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 본 연구는 2017년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졸업

²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e-mail : hshwang@smu.ac.kr)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자녀 양육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고, 기존에 생계부양자 역할을 맡아온 아버지들에게 다변화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채화영, 이기영, 2013).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최근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는 다른 자극은 부모 한 쪽의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 사회·정서 발달에 효과적이다(MacDonald & Parke, 1984; Rinaldi & Howe, 2012).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s)’라는 용어가 사용될 만큼 영향력 있고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영환, 2016; Parke, 1996/2012). 또 심층적이면서 다각적인 어머니 관련 연구와 비교하면 아버지 관련 연구들은 양육 참여와 양육 행동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버지는 돌봄 형태 위주로 양육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주로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의 놀이의 형태나 반응은 어머니와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위영희, 1983; Bridges, Connell, & Belsky, 1998; Bronstein & Cowan, 1988; Lamb, 2010). 예를 들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와 신체 놀이를 더 많이 하고, 활기 넘치고, 고무적이며, 감각적인 자극이 많아 놀이 행동이 활발하다(조복희, 1999; Lamb, 1977; Mirande, 1988). 또한 아버지와 상호작용은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적 관습적이지 않으며, 탐색적인 경향이 있다(Pruett, 2000).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 특성은 놀이상황에서 아버지가 주는 자극이 어머니와는 다른 질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관심을 갖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놀이성(playfulness)’에 주목하였다. 놀이성은 진정한 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잠재적인 힘으로 ‘성향으로서의 놀이’를 의미한다. 즉 놀이성이란 놀이하는 사람의 놀이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놀이적인 태도(Barnett, 1991, 2007; 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로서 상황을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다. 아버지의 성격특성은 놀이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놀이 행동의 결정인자로 작용하여 양육 행동과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준다(조선화, 1997;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황지현, 2012).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 연구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이영환, 2016). 또한 점차 양육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임을 예측해볼 때 아버지의 성격 특성이 자녀의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기는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유아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일컬어진다. 사회적 능력은 청소년기에는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Parker & Asher, 1987; Dishion, 1990;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 유아가 주변 상황이나 또래 간 관계에 적응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기회는 대체로 부모가 제공하므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Hagman et al., 2013). 유아에게 아버지와의 놀이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초기 경험이자 또래와의 놀이 이전에 선행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와의 놀이경험을 통해 사회화가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나중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사회적 능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놀이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놀이에 더 잘 집중한다는 권순남(2013)과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송은혜(2008)와 심윤희(2011)의 연구와 아버지의 놀이성의 하위요소인 재미탐닉이 유아의 리더십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힌 김진혜(2009)의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영향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하위요인들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익살스러움, 유머감각, 재미탐닉이 구체적으로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인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두 변인간의 관계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반드시 습득해야 할 과업 중 하나이다. 사회화 과정 중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교정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모의 영향력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은 유아의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주로 놀이를 통한 제한적인 양육 참여를 보이므로 아버지의 풍부한 놀이성을 기반으로 한 놀이 상호작용은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Parke, 1994). 또한 존 가트맨, 남은영(2007)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신체적인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소비하는 놀이를 함으로써 자녀에게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틀에 박혀있는 놀이 활동을 하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과격한 놀이를 하거나 더욱 참신한 놀이를 시도한다(Lamb, 2010). 이러한 특징들은 유아에게 놀이를 통한 정서변화와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발달은 아버지의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놀이를 정서조절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익살스러움, 유머감각, 재미탐닉이 정서조절의 하위변인인 불안정/부정적 정서 및 정서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주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김은화, 2011). 이 때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두고 함께 놀이하면 놀이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높은 수준의 놀이를 끌어낼 수 있다(Benson, 1994; Smilansky & Shefatya, 1990; Sylva, Roy, & Painter, 1980; 김명순, 조향린, 박영림 그리고 신혜영에서 재인용, 2012). 이를 토대로 예상해볼 때,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

에 따라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해 놀이를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와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였다(Russell & Saebel, 1997; Smith & Syddall, 1978).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도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영실, 부정민, 2009; 김보민, 2006; 류희정, 이진희, 2013; 송은혜, 2008; 한영숙, 2006). 놀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임정란, 2002; 한현아, 2000), 놀이 참여자로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영실, 부정민, 2009). 아울러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 또한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류희정, 이진희, 2013), 아버지의 역할놀이와 기능놀이 참여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최혜순, 김찬숙, 2011). 이처럼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놀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때 아버지의 놀이성이 놀이에 더 많이 반영되어 이것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이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주요 변인 간 조절 변인으로써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 참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단편적으로 그들 간의 관계 여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가정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권순남, 2013; 송은혜, 2008). 그러므로 아버지가 제공하는 놀이 참여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개인적 변인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놀이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 참여 수준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맥락임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선행 연구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음 점을 감안하여 놀이성, 사회적 능력, 정서조절의 하위변인별로 어떠한 영향력이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 참여 수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4개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8곳과 유치원 1곳을 섭외한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채용 중인 유아 만 4, 5세 139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 참여 수준을 아버지가 측정하여 설문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남아가 67명(48.2%), 여아가 72명(51.8%)로 분포되어 있으며, 유아의 연령 분포는 만 4세가 56명(40.3%), 만 5세가 83명(59.7%)이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82명(59.0%), 둘째가 49명(35.3%), 셋째는 7명(5%), 넷째 이상은 1명(0.7%)이다.

연구대상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30대가 52명(37.4%), 40대가 83명(59.7%), 50대가 4명(2.9%)으로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67명(4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사무/관리/전문이 78명(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25명(18.0%), 판매/영업/서비스직이 15명(10.8%), 기타 11명(7.9%), 생산/기능/노무직이 9명(6.5%), 무직/퇴직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87명(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1명인 가정은 37명(26.6%), 3명인 가정은 13명(9.4%), 4명 이상인 가정이 2명(1.4%)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인 가정이 71명(51.1%), 600만원 이상인 가정이 45명(32.4%), 300만원 미만의 가정이 23명(16.5%)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놀이성

아버지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혜주(2008)가 번안한 Schaefer와 Greenberg(1997)의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S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익살스러움, 유머감각, 재미탐닉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살스러움은 농담을 하거나 재미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유머감각은 유머감각이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성향을 보여주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미탐닉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상황을 만드는 성향을 보여주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놀이에서 재미를 탐닉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각 영역의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평정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의 성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별 Cronbach's α 값은 .83, .78, .60으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검사는 우수경(2002)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Likert식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까지로 선택할 수 있다. 3가지 하위영역(주도성, 협조성, 사교성)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 중 주도성은 놀이를 할 때 먼저 제안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9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주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조성은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하거나 공유하는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9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협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거나 또래를 잘 사귀는 정도를 판단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 Cronbach's α 값은 .87, .78, .87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

Shields와 Cicchetti(1997)가 제작한 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ERC)를 김지윤(2007)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조절은 불안정/부정적 정서와 정서통제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14문항과 9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평정 척도로 평정한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발 및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정서통제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해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통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 Cronbach's α 값은 .77, .69이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4)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의 측정을 위해 아버지가 유아와 평일 및 주말에 함께 놀이하는 시간(2문항)을 묻는 문항과 놀이 참여 수준을 묻는 문항(1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놀이 참여 시간에 대한 문항 구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보장되어야 측정할 놀이 참여 수준을 분석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놀이참여 수준은 이숙재(1984)의 놀이 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하여 평소 자녀와 놀이할 때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을 방관(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4가지 수준에서 평가하며 각 수준에 따라 1~4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1수준(방관)은 자녀를 혼자 놀게 두거나 아내, 형제와 함께 놀게 하고 아버지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수준이며, 2수준(바라보기)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자녀의 옆에서 놀이행동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수준, 3수준

(소극적 참여)은 놀이에 참여하지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를 말하고, 4수준(적극적 참여)은 자녀의 놀이상대자로서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참여하는 수준을 말한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2017년 3월 10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소재 어린이집 1곳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 28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는 대상자들의 문항 이해와 응답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2) 본 조사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앞서 서울시 소재 유아 교육기관 9곳에 전화 통화를 통해 연구목적과 설문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그 후 연구자가 각 기관에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설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만 4, 5세 유아반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해 아버지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한 설문지는 146부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3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놀이성,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정서조절의 전반적인 경향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 결과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아버지 놀이성의 평균은 3.38($SD = .52$)점으로 중간 값인 3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익살스러움은 2.84($SD = .61$)점, 유머감각은 3.54($SD = .61$)점, 재미탐닉은 3.05($SD = .63$)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놀이참여수준의 평균은 3.35($SD = .62$)점으로 중간 값인 2.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 아버지의 놀이성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정서조절의 전반적인 경향

(N = 139)

변인	Min	Max	M(SD)	범위
아버지의 놀이성				
익살스러움	1.40	4.00	2.84(0.61)	
유머감각	2.00	5.00	3.54(0.61)	
재미탐닉	1.67	4.50	3.05(0.63)	1 ~ 5
전체	2.22	4.67	3.38(0.52)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	1.00	4.00	3.35(0.62)	1 ~ 4
유아의 사회적 능력				
주도성	2.22	5.89	4.36(0.66)	
협조성	2.67	5.89	4.53(0.60)	
사교성	2.60	6.00	4.53(0.66)	1 ~ 6
전체	3.17	5.78	4.46(0.51)	
유아의 정서조절				
불안정/부정적 정서	1.86	3.86	3.14(0.34)	
정서 통제	1.89	3.67	3.05(0.33)	1 ~ 4
전체	2.26	3.70	3.10(0.29)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평균은 4.46($SD = .51$)점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주도성은 4.36($SD = .66$)점, 협조성은 4.53($SD = .60$)점, 사교성은 4.53($SD = .66$)점이었다. 넷째, 유아의 정서조절은 평균 3.10($SD = .29$)점이었으며 하위변인인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3.14($SD = .34$)점, 정서통제는 3.05($SD = .33$)점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상관관계 결과는 첫째, 아버지의 놀이성 중 익살스러움은 불안정/부정적 정서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상관계수 .20~.55의 범위 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성 중 유머감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주도성($r = .27$)과 협조성($r = .20$)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정서조절 중 정서 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22$). 셋째, 아버지의 놀이성 중 재미탐닉은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과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24$). 넷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의 모든 하위변인 간에는 상관계수 .28~.61의 범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의 연령과 성별은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므로(강기숙, 이경님, 2001; 김정은, 신유림, 2015; 임정빈, 2017)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고 자녀의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표 2. 아버지의 놀이성 및 놀이 참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능력 간 상관관계

(N = 139)

변인	놀이성			놀이 참여 수준	사회적 능력			정서조절 능력	
	1	2	3	4	5	6	7	8	9
1	-								
2	.39***	-							
3	.55***	.38***	-						
4	.22*	.15	.24**	-					
5	.20*	.27**	.12	.13	-				
6	.26**	.20*	.15	.13	.42***	-			
7	.28**	.13	.08	.21*	.51***	.42***	-		
8	.07	.09	.01	.04	.28**	.61***	.30***	-	
9	.28**	.22**	.16	.18*	.50***	.53***	.60***	.42***	-

* $p < .05$, ** $p < .01$, *** $p < .001$.

1.익살스러움, 2.유머감각, 3.재미탐닉, 4.놀이 참여 수준, 5.주도성, 6.협조성, 7.사교성, 8.불안정/부정적 정서, 9.정서 통제

위해 공차한계 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643에서 .992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0.1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로, 분석 및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모두 1.008에서 1.554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1)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Durbin-Watson 계수 산출을 통해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해보았다. 이 통계량은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수치가 0 또는 4에 가까울 경우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는 기준 값으로 2를 설정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주도성의 Durbin-Watson 계수가 1.876, 협조성은 1.976, 사교성은 2.013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놀이성의 하위변인 중 유머감각이 유아의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3, p < .05$),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이 유아의 협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5$).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이 유아의 사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p < .01$).

2)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표 3.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	종속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자녀연령	-2.05	-.17*	-1.70	-.14	-.62	-.06	-.26	-.02	-.76	-.11	-.52	-.08		
자녀성별 ^a	1.18	.10	1.15	.10	-1.08	-.10	-1.27	-.12	.32	.05	.18	.03		
익살스러움			.21	.11			.42	.24*			.34	.31**		
유머감각			.31	.23*			.14	.11			.03	.04		
재미탐닉			-.06	-.04			-.03	-.02			-.09	-.11		
R^2	.04		.12		.01		.09		.02		.09			
ΔR^2	.04		.07		.01		.08		.02		.07			
F	2.99		3.46**		.84		2.69*		1.10		2.77*			

^a더미변수 0 = 여아, 1 = 남아

* $p < .05$, ** $p < .01$.

마찬가지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해보았는데 이 분석에서 Durbin-Watson 계수는 불안정/부정적 정서 요인은 1.977, 정서통제 요인은 1.882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은 불안정/부정적 정서 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6$). 반면 표 4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유아의 정서조절 중 정서통제에 대해서 9.7%의 설명력을 보였고($F = 2.85$, $p < .05$), 아버지의 놀이성 중 익살스러움이 유아의 정서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 $p < .05$).

표 4.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독립	종속		불안정/부정적 정서				정서통제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β	B	β	B	β	B	β		
자녀연령	.26	.03	.41	.04	-.32	-.05	-.11	-.02		
자녀성별 ^a	-1.46	-.15	-1.49	-.16	.45	.08	.36	.06		
익살스러움			.13	.08			.22	.23*		
유머감각			.09	.08			.10	.15		
재미탐닉			-.07	-.05			-.02	-.03		
R^2	.03		.04		.01		.10			
ΔR^2	.03		.01		.01		.09			
F	1.75		1.06		.65		2.85*			

^a더미변수 0 = 여아, 1 = 남아

* $p < .05$.

3.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상호작용변인(독립변인×조절변인)의 투입으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중심화 절차를 수행하였다.

1)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놀이성 중 재미탐닉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전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값을 산출한 결과, 값이 모두 .848에서 .992의 범위 안에서 나타났다. 분산팽창요인 값은 1.008에서 1.180의 값으로 나타나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주도성의 Durbin-Watson 계수가 1.899, 협조성은 1.997, 사교성은 1.901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변인은 표 5의 아버지의 재미탐닉과 유아의 사교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였으며, 3단계의 설명력은 9.7%($F = 2.85, p < .05$)로 나타났다. 이 때, 상호작용항이 3.9%의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beta = -.21, p < .05$)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재미탐닉이 유아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표 5. 아버지의 재미탐닉과 유아의 사교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유아의 사교성			
			Model 2		Model 3	
	Model 1		B	β	B	β
자녀 성별 ^a	.32	.05	.17	.03	.04	.01
자녀 연령	-.76	-.11	-.68	-.10	-.78	-.11
재미탐닉(X_3)			.03	.03	.05	.05
놀이참여수준(M)			1.05	.20*	.71	.13
$X_3 \times M$					-.27	-.21*
R^2	.02		.06		.10	
ΔR^2	.02		.04		.04	
F	1.10		2.05		2.85*	

^a더미변수 0 = 여아, 1 = 남아

* $p < .05$.

유아의 사교성에 미치는 아버지의 재미탐닉의 영향이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 그리고 Reno(1991)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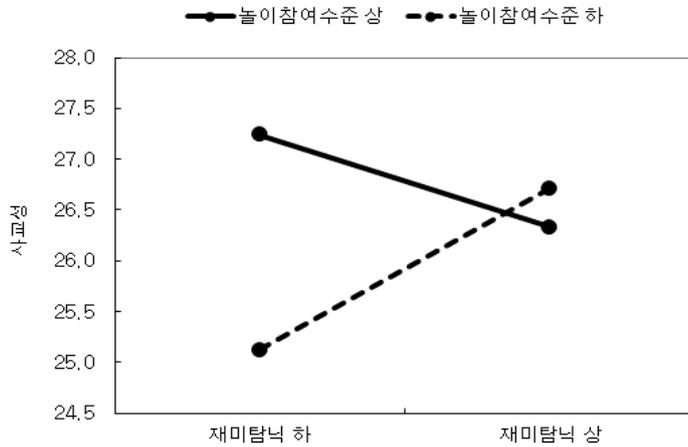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의 재미탐닉과 유아의 사교성,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2)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의 계수를 알아본 결과, 불안정/부정적 정서가 2.03, 정서 통제는 1.87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변인은 표 6에서 아버지의 익살스러움과 유아의 정서 통제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3단계의 설명력은 13.5% ($F = 4.15, p < .01$)로 유의하였다. 이 때, 설명력의 변화량(ΔR^2)이 4.3%로 상호작용항이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22, p < .05$)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놀이성 중 익살스러움이 유아의 정서 통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표 6. 아버지의 익살스러움과 유아의 정서 통제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자녀 성별 ^a	.46	.08	.26	.04	.38	.06
자녀 연령	-.32	-.05	-.13	-.02	-.00	.00
익살스러움 (X_1)			.24	.24**	.26	.27**
놀이참여수준 (M)			.55	.12	.81	.17
$X_1 \times M$.35	.22*
R^2	.01		.09		.14	
ΔR^2	.01		.08		.04	
F	.65		3.41*		4.15**	

^a더미변수 0 = 여아, 1 = 남아

* $p < .05$, ** $p < .01$.

유아의 정서 통제에 미치는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의 영향이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Aiken 등(1991)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도식화하여 그림 2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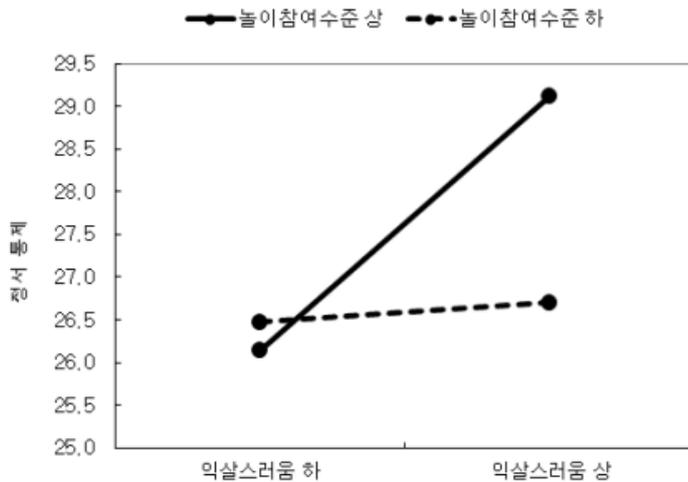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의 익살스러움과 유아의 정서 통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성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놀이성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 하위변인, 정서조절 중 정서 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유머감각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주도성과 협조성, 정서조절 중 정서 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재미탐닉은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놀이성 중 익살스러움과 재미탐닉,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사교성, 정서조절 중 정서 통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송은혜(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리더십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권순남(201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성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이 유아의 협조성과 사교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유머감각은 유아의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쾌활하고 표현성이 높은 놀이성의 소유자일 때 유아가 협동적이고 친구를 쉽게 사귀는 경향이 높아

진다는 김종석(201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높은 놀이성의 아버지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쾌활하고 즐거운 태도를 빈번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높은 놀이성에 의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와 유의미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유머감각이 높은 아버지는 놀이를 통해 유아의 유쾌한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고, 유아가 유머를 사용하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가 놀이를 제안하거나 시도할 때 또래들의 수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진영, 2004).

셋째, 아버지의 놀이성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놀이성 중 익살스러움이 유아의 정서조절 중 정서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는 황지현(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익살스러움이 높은 아버지와 유쾌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바탕으로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자녀가 느끼는 여러 가지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놀이성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재미탐닉과 유아의 사교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재미탐닉이 유아의 사교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유아의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던 아버지의 재미탐닉이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사교성을 높이는 변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아버지는 유아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유아의 사교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농담과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아버지의 성향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반영되어 유아도 재미있는 놀이행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지닐 확률이 높다. 이것이 유아가 또래 간의 놀이에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즐거움을 주는 유아로 인식될 수 있게 도와 또래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인의 하위영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윤지은(2015), 장여옥(2016)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섯째,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놀이성과 자녀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익살스러움과 유아의 정서 통제와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통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익살스러움이 정서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놀이참여수준이 낮은 경우엔 더 이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아버지의 익살스러운 성향이 유아의 정서통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높은 놀이참여수준이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는 억살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의 정서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억살스러운 특성이 유아의 정서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아버지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아버지의 놀이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억제가 높게 나타났다는 최미선(201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문제 상황에 직면한 유아로 하여금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아버지와 놀이에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정서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

Parke와 Tinsley(198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지만 양육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실제 어머니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를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통해 높은 놀이 참여수준을 보여준다면 짧은 놀이 시간을 보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가정 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임을 기대해볼 때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아버지의 놀이 참여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유아와 아버지의 수가 139명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개인 변인에 따른 놀이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놀이성이 개인적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로 인해 아버지의 놀이성 및 놀이 참여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측정은 제 3자에 의한 평가에 비해 자료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인 교사의 평가를 통해 측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연구자가 실제 아버지와 유아의 놀이상황을 직접 참관하여 상호작용의 내용과 놀이참여 수준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남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고영실, 부정민 (2009).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4(1), 95-112.

- 권순남 (2013).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2), 53-71.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2. 11).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서울.
- 김보민 (2006).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참여수준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화 (2011). 아버지와 영유아의 주말 놀이 공유 실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2(2), 73-87.
- 김정은, 신유림 (201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및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219-237.
- 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윤 (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4). 유아들의 유머와 친구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113-133.
- 김진혜 (2009).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놀이성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doi:10.16978/eccc.2013.8.2.003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수줍음 및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39-249.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 (2011).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주 (2008). 일반 아동 어머니와 놀이치료 내담 아동 어머니의 놀이성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은 (2015). 아버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영희 (1983). 아버지-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아동학회지**, 4, 23-35.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 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 (2016). 우리나라 아버지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59-78. doi:10.

14698/JKCCE.2016.12.06.059

- 임정란 (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2017).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여옥 (2016).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167-182. doi:10.14698/jkce.2016.12.02.167
- 조복희 (1999). **아동발달**. 파주: 교육과학사.
- 조선화 (1997).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179-203
- 존 가트맨, 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치**. 서울: 한국경제신문.
- 채화영, 이기영 (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 가정 양립 경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5), 497-511. doi:10.6115/fer.2013.51.5.497
- 최미선 (2015).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현아 (2000). 아버지의 놀이참여형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현 (2012).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 참여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간의 구조 모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arnett, L. A. (1991). Characterizing playfulness: Correlates with individual attributes and personality traits. *Play and Culture*, **4**(4), 371-393.
- Barnett, L. A. (2007).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4), 949-958. doi:10.1016/j.paid.2007.02.01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enson, T. R. (1994). *Needed: Playleaders - The adult's role in children's play*.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ED 371-843)
- Bronstein, P., & Cowan, C. P. (1988).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9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92-100. doi:10.1037/0012-1649.24.1.92
-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3), 874-892. doi:10.2307/1130971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 71(1), 83-103. doi:10.2466/pr0.1992.71.1.83
- Hagman, E., Reinehr, T., Kowalski, J., Ekblom, A., Marcus, C., & Holl, R. W. (2013). Impaired fasting glucose prevalence in two nationwide cohorts of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8(1), 40-45. doi:10.1038/ijo.2013.124
- Lamb, M. E. (1977). The development of mother - infant and father- infant attachment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3(6), 637-648. doi:10.1037/0012-1649.13.6.637
-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1-26). Hoboken, NJ: Wiley.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doi:10.2307/1129996
- Mirandé, A. (1988). Chicano fathers: Traditional perceptions and current realities. In P. Bronstein & C. P. Cowan (Eds.),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pp. 93-106).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A commentary on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57-169.
- Parke, R. D. (2012). *Fatherhood,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김성봉 옮김) (2nd ed). 서울: 샘터(원판 1996).
- Parke, R. D., & Tinsley, B. R. (1981). The father's role in infancy: Determinants of involvement in caregiving and play.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429-457).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doi:10.1037/0033-2909.102.3.357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doi:10.1016/j.ecresq.2011.08.001
- Pruett, K. D. (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ew York: Free Press.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and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doi:10.1006/drev.1997.0456
- Schaefer, C., & Greenberg, R. (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A neglected the 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 21-31. doi:10.1037/h0089406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 Psychology*, 33(6), 906-916. doi:10.1037/0012-1649.33.6.906
- Smilansky, S., & Shefatya, L. (1990). *Facilitating play: A medium for promoting cognitive, socio-emot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Gaithersburg, MD: Psychological & Educational Publications.
- Smith, P. K., & Syddall, S. (1978). Play and non-play tutoring in pre-school children: Is it play or tutoring which matte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3), 315-325. doi:10.1111/j.2044-8279.1978.tb03017.x
- Sylva, K., Roy, C. & Painter, M. (1980). *Childwatching at playgroup & nursery schools*.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논문투고: 18.08.15
수정원고접수: 18.11.04
최종게재결정: 19.02.02